

2003년 R&D투자 확대 50%+

산기협, 3-5년 후 경쟁상대국 중국 61.5% ... 기술경쟁 심화

국내기업의 50% 이상이 연구개발(R&D)을 기업성장의 핵심요인으로 인식해 R&D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회장 강신호)가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6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, 2003년 투자규모를 2002년보다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57.7%로 반수를 넘어선 반면,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3.4%에 그쳐 성장전략을 R&D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업계에 확대되고 있다. 2002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도 38.2%에 달했다.

또 차기정부가 민간산업기술 진흥을 위해 가장 역점을 뒤탈 분야에서도 R&D 투자 확대(57.3%)를 꼽았다. 복수응답을 포함해 핵심연구인력 양성(50.1%),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(41.9%), 기초기술 연구개발 강화(38.8%) 등을 차기 정부에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그러나 기업연구소들은 우수인력 부족(61.8%복수응답)과 연구개발자금부족(44.9%), 국내·외 마케팅 및 영업력 부족(27.5%) 등을 R&D 활동에서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했다.

연구개발투자 전망(2003)

(단위: 개, %)

구 분	대기업	중소기업	벤처기업	합 계
10% 이상 축소	1(1.7)	7(2.5)	6(2.2)	14(2.3)
1- 10% 미만 축소	1(1.7)	3(1.0)	3(1.1)	7(1.1)
2002년 수준 유지	22(37.3)	117(41.1)	98(35.4)	237(38.2)
1- 10% 미만 확대	25(42.4)	90(31.6)	99(35.7)	214(34.5)
10% 이상 확대	9(15.2)	64(22.5)	71(25.6)	144(23.2)
무응답	1(1.7)	4(1.3)	-	5(0.7)
합 계	59(100.0)	285(100.0)	277(100.0)	621(100.0)

자료)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, 기업연구소 연구개발활동관련 설문조사, 2002. 11

한편, 기업의 69%가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일본(45.6%), 미국(23.0%), 타이완(11.1%), 중국(8.5%) 등 순으로 꼽힌 경쟁상대국도 3-5년 뒤면 중국, 미국, 일본, 타이완 순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특히, 3-5년 뒤 가장 큰 경쟁상대국으로 중국을 꼽은 기업이 61.5%에 달해 2위인 미국(11.9%)보다 중국을 훨씬 더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이밖에 2003년 충원할 연구인력으로 석사급 연구원(56.3%)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학사급 연구원(36.2%)과 박사급 연구원(7.5%)이 뒤를 이었다.

< Chemical Daily News 2002/ 12/ 12 >